

 경상남도 GYEONGNAM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2021 년 4 월 21 일, 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사무소
		2021 . 4 . 21 (수)

□ 인도네시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로 10 개월 만에 가장 적은 무역 흑자, 경제회복 징후

인도네시아의 3 월 무역흑자는 수출 호조세와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 달 전보다 줄어들어 코로나 19 대유행 침체로 인한 경제 회복의 가장 좋은 징후를 보여주었다.

통계청(BPS)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인도네시아 경제가 3 월 무역흑자를 15 억 6 천만 달러로 한 달 전 19 억 9 천만 달러보다 줄었다고 15 일 밝혔다.

BPS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 2 월에 비해 20% 증가한 184 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 많았으며, 수입은 지난 2 월 대비 27% 증가한 168 억 달러로 2020 년 3 월에 비해 26% 증가하였다.

BPS 는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무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석유 및 가스제품의 수출은 175 억달러로 2 월에 비해 21 퍼센트, 2020 년 3 월에 비해 30 퍼센트가 증가하여 무역흑자 증가율에 기여하였으며, 비석유 및 가스 수입은 145 억 달러로 2 월에 비해 21 퍼센트, 2020 년 3 월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는 원유와 가스를 제외한 무역에서 30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석유와 가스 무역수지에서는 여전히 13 억 7 천만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재와 기계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기업들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BPS 자료에 따르면 3 월 원자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129 억 달러를 기록했고 기계류 수입은 34% 증가한 24 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데이터는 지난 3 월 월별 제조업 생산 확대 및 구매관리자 제조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와 일치했다.

인도네시아 PMI 는 2011 년 4 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53.2 로 2 월의 50.9 보다 증가하였으며, 수치가 50 을 넘으면 팽창을 의미한다.

앤드루 하커(Andrew Harker) 인도네시아 IHS 마킷 경제이사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지금까지 10 년간 이어진 가장 강력한 신규 오더 유입에 따른 기업들이 생산 증가는 1 분기로 고공행진을 마감하였으며, 1 분기와 같은 다소 긍정적인 결과는 제조업이 다시한번 빠른 속도로 상승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언제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였다.

BPS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비 석유 및 가스 수출의 3 대국은 중국(120 억 달러), 일본(31 억 달러), 한국(23 억 4000 만 달러)이었다. 지난 3 개월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비 석유와 가스 수출액은 71 억 6 천만 달러이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4 억 1 천만 달러에 달했다.

□ 인도네시아 스리 재무장관, 대규모 코로나 구제 기금 페이스 북을 통해 설명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띠 (Sri mulyani indrawati)재무장관은 월요일 코로나 19 와 관련된 대규모 의료 지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정부는 백신 조달, 진단 검사, 코로나 19 환자 입원,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130 조 루피아를 할당했으며, 이 자금은 도로 9,352km 또는 교각 293,222m 또는 학교 67,708 개를 건설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개발 프로그램까지 위협하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처하는 정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언급하였다.

스리 장관은 긴급 의료비 지출은 경제 회복 대책을 지원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빈곤층에게는 사회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코로나 관련 구호 기금 총 700 조 루피아의 일부이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해 6%의 재정적자로 국가예산이 압박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 19 극복 후에 단순한 경제회복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재무부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1 분기에 여전히 1 퍼센트 내지 0.1 퍼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 2 분기에는 1 분기 대비 최대인 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인 인도네시아 경제는 세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작년에 2.07%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네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 월 4.8%에서 4.3%로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5.8%로 유지했다.

□ 인도네시아: 디지털 화폐, 아직 시기상조

중앙은행(BI)이 검토 중에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법률적 측면의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MBRA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인 뿌뚜 라디따 누그라하(Putu Raditya Nugraha) 따르면 아직 법에 따르면 화폐는 종이 형태로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장관의 서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화폐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 계좌의 돈마저 가뭄 없어지는 마당에 누가 디지털 화폐로 저축을 하겠는가? 사람들은 디지털화폐가 시스템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신뢰성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클 것이라고 뿌뚜 파트너는 말하였다.

중앙은행은 먼저 법적인 측면을 정비한 후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준비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이 화폐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지만 혼자서 정할 수 없고 다른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뿌뚜는 말하였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전력문제, 자연재해 등으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 저축 혹은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소유하지 못하여 화폐의 보편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뿌뚜 선임 파트너는 경고하였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올해 전자상거래액 337 조 루피아 예상

중앙은행(BI)은 국가경제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최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정했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화 영역확장과 신속추진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은 핀텍(Fintech)기술을 이용하여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대체할 디지털뱅킹 시스템을 고안하게 될 것이며, 중앙은행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긍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페리 총재는 올해 전자상거래(e-commerce)금액은 337 조 루피아로 작년 253 조 루피아 보다 33% 증가할 것이라고 4 월 5 일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축제 개막식에서 말하였다.

또한 전자화폐 사용액은 올해 266 조 루피아로 작년 201 조 루피아 대비 32%의 성장할 것이며, 디지털 은행 거래 목표액은 32,200 조 루피아로 작년 27,000 조 루피아 대비 19% 성장할 것으로 책정하였다.

중앙은행은 2019 년 발표한 디지털화 로드맵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와 금융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새로운 금융결제시스템도입을 위해 인도네시아 표준 QR 코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페리 총재는 말하였다.

중앙은행은 국가경제와 금융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페리 총재는 거듭 강조하였다.

□ 함양군, 국제우호교류도시 인도네시아 보고르군에 마스크 기부 (한인포스트)

- 코로나 19 로 고통받고 있는 우호교류도시에 방역 마스크 24,000 매 전달

함양군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보고르군에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24,000 매를 지난 4 월 8 일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 19 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군 역시 방역물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가간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마스크 기부는 함양군과 KOTRA, KOTRA 현지 무역관, 경상남도 인도네시아 사무소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마스크 구입은 함양군에서, 마스크 운송과 통관 등에 소요되는 관한 비용은 KOTRA 의 글로벌 CSR 상생지원형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경상남도 자카르타 사무소와 KOTRA 현지 무역관에서 사업신청과 현지 전달 등을 지원하였다.

서춘수 함양군수는“함양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보고르군이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무척 안타까웠다”면서“하루 빨리 코로나 19 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과 인도네시아 보고르군은 2019 년 9 월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후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 기부된 마스크는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고르군 주민들에게 배포될 것이다.

이종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IK-CEPA, 한류의 확산, 한국 첨단산업의 인도네시아투자 진출 등에 힘입어 양국간 협력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에 경남 함양군에서 해외교류 도시인 인도네시아 보고르군에 방역 마스크를 기부해 주셨는데, 지자체 차원의 이번 CSR 은 한층 돈독해진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OTRA 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도 협력해서 인도네시아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동시에 CSR 활동을 통해 K-방역이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포사회부>

□ [COVID-19] 4 월 20 일 누적확진자 1,614,849 명 사망 43,777 명 회복 1,468,142 명

4 월 20 일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누적확진자 1,614,849 명 사망 43,777 명 회복 1,468,142 명으로, 전날에 비해 신규확진자가 5,549 명이 추가됐고 사망자 수는 210 명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서부자바에서 신규확진자 1,399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일확진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중부자바에서 682 명, 자카르타에서 460 명, 리아우에서 410 명, 동부자바에서 258 명, 동누사뎡가라에서 248 명, 족자카르타에서 210 명, 발리에서 207 명, 서부수마트라에서 176 명, 방카블리둥에서 152 명, 동부팔리만탄에서 149 명, 남부팔리만탄에서 147 명, 중부팔리만탄에서 142 명, 반뜰에서 109 명, 람땡에서 107 명 등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4 월 20 일 누적확진자 1,614,849 명 사망 43,777 명 회복 1,468,142 명
사망률 2.71% /일일검사샘플수 (PCR+TCM+Antigen) 69,207 건
/일일검사자수(PCR+TCM+Antigen) 48,107 명